미래 10년 준비 불교중앙박물관… '인력·홍보' 과제

개관 10주년 맞은 불교중앙박물관, 성과와 과제는

'불교문화 수호와 보존'의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2007년 건립된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이 지난 10년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 숨고를 틈 없이 미래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2007년 불교문화의 발굴 보존 및 관리, 전승 등을 목적으로 조계종이 설립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지인 인사동 거리와 창덕궁·경복궁 등 고궁, 조계사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홍포하고 대중화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불교중앙박물관은 성보의 보존과 관리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사회적 입지를 굳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난·약탈된 불교문화재가 환수된 후 원소장처로 돌아가기에 앞서, 임시보관 및 보존처리하는 수장고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또한 불교문화의 올바른 가치를 널리 확산시킨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일반 박물관에서는 불교문화재를 전통문화와 문화재적 가치에 집중하는 반면, 불교중앙박물관은 불교적 해석과 가치를 중점적으로 알릴 수 있단 것.

8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학예연구실에서 만난 관장 현조 스님은 "불교문화재는 일반문화재와는 달리 성보로서 역사적·종교적 가치가 모두 뛰어나다. 따라서 문화재로서 가치 뿐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서도 주목해야한다"면서 "불교중앙박물관은 문화재에 대해 불교사적 해석과 가치평가를 곁들이는데 특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40여 성보박물관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컨트롤타워로서 작용한 점도 괄목할만하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성보박물관협회 등 네트워크를 구축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조 스님은 "각 사찰에 소장된 불교유물을 보존 관리하는 성보박물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종단은 성보박물관에 대한 운영 지원 뿐 아니라 소속 스님 및 학예사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불교중앙박물관은 10년간 각종 특별전 및 테마전을 개최하며, 불교문화와 대중 간의 거리를 좁히는 만남의 공간으로도 작용했다.



2007년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식.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리적 이점, 불교문화 홍포
성보 보존관리 수장고 역할
사찰 성보박물관 지원·교육
불교문화 전문 인력 등 과제

하지만 뚜렷한 성과만큼 과제도 남았다. 현조 스님은 '불교문화 전문 인력' 및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를 향후 과제로 꼽았다.

스님은 "불교문화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함양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성보박물관에 대한 국가 지원사업에 '인력 지원'도 포함시켜줄 것을 매년 요청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 1곳에 1명의 학예사만 배치돼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본 박물관은 워낙 희귀한 유물들이 많이 소장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전공자들에게 호응이 높다. 하지만 대중에게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 불교문화는 '어려운 것'으로만 남을 수 있다"면서 "일반인들이 불교문화의 정서를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고 토로했다.



박물관장 현조 스님

마지막으로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이 오늘날 발전을 이룬 것은 초대 관장 스님 및 역대 관장 스님들께서 초석을 잘 다져주셨기 때문"이라면서 "10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 관장을 맡고 있다는 책임감이 남다르다. 앞으로는 '문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전시 형태를 도입하고 선도하는 불교중앙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중앙박물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특별전 '10年×10人×10來'를 9월 14일~11월 26일 개최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 '10年의 흐름, 다시보고 싶은 성보'는 불교중앙박물관의 과거 전시에서 소개됐던 대표 유물들을 선보이는 테마로, 국보 제106호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국보 제265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3' 등이 소개된다.

2부 '10人, 불교미술의 꽃을 피운 장인'은 불교 미술인 10명의 작품이 전시되며, 이 중에는 1703년 의균 스님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아미타불회도 등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 포함된다.

3부 '10來, 앞으로 더욱 빛날 성보'는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주목되는 불교문화재가 주를 이룬다. 일연 스님이 주석하던 군위 인각사 출토 불교금속공예품 등이 전시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모든 건 下心서 비롯된다

⑦ 겸손과 친절

법정 스님이 달라이라마를 만날 계획이 있다고 하시기에 내가 "달라이라마는 어떤 분입니까"하고 물은 적이 있다. 그랬더니 "참으로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했다. 달라이라마는 법정 스님처럼 언어감각이 뛰어난 분이 아닌가 싶다. 유럽의 어느 신부가 달라이라마에게 "불교의 자비가 무엇입니까"하고 묻자 "친절입니다"라고 말했다. 언어감각이 아니라 언어혁명에 가깝다.

어떤 분은 법정 스님이 달라이라마를 '참으로 겸손한 분이다'라고 평했다고 해서 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21세기의 살아 있는 부처님'이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말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법정 스님이 말씀한 '겸손'은 '하심(下心)'이란 말과 동의어일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심이란 불가에서 자주 쓰는 말이다. 내 마음을 상대의 밑에 둔다는 뜻이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 밑에 내려놓는다는 뜻이니 순도 100%의 겸손과다를 바 없다.

달라이라마가 '자비'를 '친절'이라고 말한 바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자비란 나와 남이 한 몸이라는 깨달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이나 태도이다. 나와 남이 한 몸이니 남에게 친절한 것은 나에게 친절한 것이기도 하다. 깨달음 없이는 결코 하기 쉬운 표현이 아니다.

우리나라 선방 원로스님이 어느 잡지에 달라이라마는 포교사라고 폄하하여 인터뷰하셨는데 나는 그분의 단정에 동의할 수 없다. 심지어 부끄럽기까지 했다. 나와 남이 한 뿌리라는 깨달음의 체험을 하신 분이 어찌 그렇게 평가했을까 싶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수행자가 읊조리는 깨달음의 노래, 즉 오도송(悟道頌)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나와 남은 물론이고 세상과 자연이 한 몸이라는



일러스트·정윤경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송광사 방장이신 보성 스님께서 몇 해 전에 나의 산방을 들르셨다. 나의 산방도 송광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들르셨다고 말씀했다. 스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달라이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1991부터 달라이라마를 다람살라에서 여러 번 만났는데 다음과 같은 대화 끝에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했다. 달라이라마가 "조국 티베트에서 쫓겨난 뒤에야 세상의 평화를 위해 법문을 하고 다니고 있으며, 이제는 자신을 탄압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됐다"고 말하자 보성 스님이 "당신은 당신을 탄압한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다.

선문답 같은 말에 달라이라마가 "왜 고마워해야 합니까?"하고 되묻자 보성 스님이 "당신을 탄압한 사람들이 있어서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게 됐고, 그들이 없으면 용서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오"라고 대답하셨다고 한다. 이에 달라이라마가 크게 웃으며 서로 친구가 되자고 손을 내밀었다는 말씀이었다.

어느 날 법정 스님께서 차를 마시다가 '좋은 절은 친절이고, 가지 말아야 할 절은 불친절'이라고 하신 말씀도 잊히지 않는다.

생명평화법당, 범사회 문제 다룬다

'나와 사회위한 기도' 입재

그간 세월호 1000일 기도의 장으로 활용됐던 조계사 생명평화법당이 '나와 세상을 위한 기도'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백년대계본부·사회노동위원회는 8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입재식을 열고 생명평화법당을 '나와 사회를 위한 기도처'로 지정했다.〈사진〉 조계사 내 위치한 생명평화법당은 '세월호 참회와 서원 1000일기도'가 진행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사회문제를 위한 기도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기도 주제는 △8월 21~9월 10일 '한반도 평화' △9월 11일~9월 말 '세월호 미수습자를 위해' 등으로, 이후 사회현안문제를 연계해 매월 바뀐다.

이날 행사에는 종단 관계자 및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회원단체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장이자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종단의 현 상황을 언급하며 생명평화법당 활성화를 통해 조계사를 평화수호 성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생명평화법당의 활성화는 조계종에 큰 의미다. 그간 쌓인 폐습 지우고 우리가 갈 길 제대로 가게 해주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조계사가 한반도의 생명평화를 위해 앞장서는 성지가 돼야한다. 그러면 종단의 적폐도 자연히 사라지고 한국불교는 고무당당하게 제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명평화법당 기도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진행된다.

한편 생명평화법당은 조계사 마당 정진단이 2014년 12월 23일 생명평화법당으로 간판을 바꾸면서 개원했다. 이에 앞서 그 해 9월부터는 세월호 1000일기도가 진행됐으며, 2016년 9월에는 백남기 농민 분향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박진형 수습기자

